꼭지 달린 사과

(행6;1~7)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꼭지 달린 사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꼭지 달린 사과'

여러분, 꼭지 달린 사과를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무에서 딸 때 꼭지가 달려있는 그 사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보시고, 혹시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계시니까 그 모니터를 잘 보시면 모니터를 껐다 켰다 하는 부분에 꼭지 달린 사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쪽으로 꼭지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원스위치에요.
이 전원스위치가 왜 꼭지 달린 사과모양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꼭지 달린 사과모양의 의미가 숫자 0과 1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숫자의 0은 전원스위치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숫자의 1은 전원스위치를 켜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가 흘러들어가게 돼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뜻하는 것이에요.

이 전원스위치가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지만 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전원스위치가 몇 개 있을까요?
그 힘이 막강합니다.
냉장고에는 모터가 있고 그밖에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원스위치 하나 딱 켜면 그 큰 냉장고가 돌아갑니다.
TV도 마찬가지에요, TV나 냉장고의 전원스위치뿐 아니라 사실은 자동차도 우리가 시동을 건다고 하는 것이 전원스위치를 넣는 겁니다.
전기스위치를 켜면 그 전기스위치로 인해 점화되면서 기름이 분사되고 자동차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강공장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본 제강공장은 끝이 보이질 않을 만큼 크게 보였지만, 공장에 들어서면서 스위치를 탁 올리자마자 그 큰 공장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기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전원스위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기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전원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전원스위치가 켜집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전원스위치가 켜집니다.
5감관에 의하여 전원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전원스위치가 켜진다는 게 무얼 말합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마음에서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눈으로 볼 때 마음이 켜집니다.
문제에 닥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의도하게 됩니다, 켜지는 거예요.

이 켜지고 꺼지는 내 마음의 전원스위치만 잘 움직여 가면 우리 인생 잘사는 건 문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여생동안에 자기계발서를 다 치워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자기계발서를 다 치워버리고 전원스위치 하나 잘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인류역사상 있었던 모든 자기계발에 대한 책과 가르침을 무색케 만드는 베드로의 한 마디가 나옵니다.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자기계발적인 교훈들, 모든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을 다 휴지로 만들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 마디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이거 한 마디면 자기계발서 만 권을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언급되었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매일매일 나누어주어서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이 단계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약 7000명가량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7000명을 다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채 못 나누어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교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매일매일 나누어주는 구제에서 누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불평하게 되자, 이 불평하는 일을 맞닥뜨린 사도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행정입니다, '행정에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들에 말려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우리의 본분을 잊

어버리겠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심하리라, 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뽑자!'
그렇게 뽑힌 일곱 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접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요즘의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하도 크니까 담임목사님이 다 맡아서 일을 못하십니다.
그러니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눠서 부목사님들에게 그 부서를 담당하는 지도목사로 맡기시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예산 제로 목사'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교회예산 제로 목사,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맡은 부서는 교회예산이 거의 지출되지 않는 부서입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오래 계신 선배부목사님들께서 중요보직의 부서를 맡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 중요보직이라는 게 다 뭐였나 하면 결국은 교회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중요보직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교부, 목양부, 행정부, 봉사부, 이런 부서들이 중요한 부서들이라서 고참 부목사님들이 그 보직을 맡습니다, 저같이 신참내기들은 장년교육부, 이 장년교육부는 어린이들 교육부와는 달리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데, 성경공부반에서 각자가 필요한 비용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서를 맡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락교회에서는 고참 부목사님들이 중요부서라고 해서 맡은 것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서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 맡은 일이 뭐냐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 요즘 교회가 거꾸로 된 거예요.

요즘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웃기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key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와 말씀, 엄밀히 말하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베드로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화두 하나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씀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곧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도들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이고, 말씀사역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먼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준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전해 받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말의 뜻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전체, 매 장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게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얘기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얘깁니다, 교회봉사, 구제, 교회건축, 이런 것 다 제쳐놓고 이 일에만 신경 쓰겠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행정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켜졌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분주해졌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교회행정에 마음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줘야겠고 저렇게 나눠줘야 되겠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그걸 끄겠다는 얘깁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켜져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이 켜져 있는 상태를 끄겠다는 얘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자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서 내 마음에 켜져 있는 상태,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해서 켜져 있는 상태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전원스위치의 끔을 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심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일에 대해서 꺼집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켜집니다.
근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향해 켜집니까?
하늘을 향해 켜집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살고, 귀로 듣고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켜져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 전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같이 죽은 자라고 고백함을 통해 꺼집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부활하게 될 때 어느 방향으로 켜지느냐 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켜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름 위의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아버지를 향해 켜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켜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켜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해 켜져 있을 때, '아, 내가 돈이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듯이 그렇게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면 좋겠다, 천국이 나의 첫 번째 현실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많이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켜지는 겁니다.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으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켜지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 전심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때 노예들을 놓아주었던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기마병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는 성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전원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군대, 이 상황에 대해서 끄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으므로 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아버지의 뜻이 켜집니다.
하나님아버지의 행동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군대가 다 멸절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물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켜지고 하나님의 뜻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된 소리라는 얘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전심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아버지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갈망, 이런 것으로 하늘을 향해 켜지기만 하면 되요, 이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꺼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켜지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자기계발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나를 계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계발하는 게.

그러므로 사도들이 지금 결심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끄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일에 대해 꺼짐으로써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켜지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 말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 행정 일에 대해 마음이 꺼질 때, 앞에 보았던 표적과 기사들이 다 하나님이 켜지심으로 나타난 결과였거든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켜지신 겁니다.
근데 교회행정 일에 내 마음이 켜져서 바쁘다 보니까 하늘을 향해 켜질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해 꺼지질 않고, 세상에 대해 계속 켜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켜지질 않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이루어진 당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이 원칙대로 하자면, 교회 모든 행정에 대해서 스위치를 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것을 권유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기도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 장로님들의 일이고 목사님들의 일이라는 얘깁니다.
교회의 발전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권고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켜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켜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켜지고…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할 일은 홍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뗏목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갈 것이냐, 지금 어떻게 무기를 모아서 애굽 군대와 싸울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 집안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전심을 해서 할 것은 십자가 붙잡고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의 켜짐과 관심은 오직 구름 위에 계신 아버지하나님을 향해서만 켜지는 겁니다.
이때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켜지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원스위치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원스위치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심을 기울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 붙잡고 전원스위치를 끄고, 하늘을 향해서 켜놓고 기다리다 보면 하늘이 내 것이 되고, 이때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뜻을 켜시고 행동을 켜시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꼭지 달린 사과, 이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